

생산과 소비에서 위기 맞은 비평집 출판

거대담론의 실종 등 시대환경의 변화 작용해...
모호한 관점, 난해한 개념 남발로 '글맛' 잃어

비평집 출판이 저조하다. 품귀도 문제지만 그나마 출간돼도 읽는 사람이 드물다.

비평집이 찬밥 신세가 된 요인은 복합적이다. 민족주의와 현실 사회주의라는

양대 담론이 실종되면서 비평의 사회적 통로가 좁아진 것이 그 하나다.

서구 문학이론에 대한 의존에도 그 이유가 있다. 작가론·작품해설 등의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에 따른 매너리즘도 비평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학이 융성한 시기에 비평도 활발했다. 대중문화가 본격문학을 압도하는 요즘 문화 평론이 시대담론의 기수로 나선 것을 봐도 그렇다. 순문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요즘 비평은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여러 징후가 보이지만 비평집 출판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비평집 출판에 나타난 비평의 위기

우선 출판 종수가 줄었다. 비평가는 늘었지만 저서를 펴낸 쪽은 열에 한둘이다. 판매는 거의 바닥을 친다. 비평집 베스트셀러는 '그림의 떡'이다.

문학평론집은 보통 초판 1천부를 찍는다. 그러나 다 팔리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가 절반을 사가는 경우도 많다. 몇몇 출판사들은 이를 출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럴 땐 채 5백부도 안 팔린다는 이야기다. 나중에 다수가 반품으로 되돌아온다.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비평집 권당 예상 물량은 3백권에서 많아봤자 1천권이 다. 전공 대학원생과 교수들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읽지 않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비평집을 출간해온 문학과지성사, 창작과비평사, 민음사는 그래도 꾸준히 비평집을 내는 편이다. 1년에 적게는 2~3권, 많게는 5~6권을 펴낸다. 세계사와 실천문학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비평집 출간이 뜸해지다가 현재는 아예 내지 않고 있다. 1987년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김중배)를 펴낸 이후 사회비평집을

간간이 출간해온 나남출판 역시 1996년 이후 비평 분야에선 잠잠하다.

문화비평은 비평가 숫자 대비 비평집 수가 가장 낮다. 또 단독저서가 아닌 여러명의 글모음이 대다수다. 1994년 김성기의 《패스트푸드점에 갇힌 문화비평》(민음사), 1997년에 나온 원용진의 《광고문화비평》, 1998년 신현준의 《입 닥치고 춤이나 춰》(이상 한나래) 등이 주목받은 후 뜸하다. 지난해 문화과학사에서 《리베로를 꿈꾸는 비평》(이성욱)이 나온 이후 소식이 없다.

물론 예전에도 비평집 출판시장은 협소했다. 하지만 비평집이 창작하는 이들과 동료 평론가들에게 갖는 의미는 지금과 달리 각별했다. 은근히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었고, 책이 나오면 짧게든 길게든 모두 한마디씩 써들었다.

이런 축 처진 분위기와는 달리 소명출판의 경우 비평집 출판에 의욕적이다. 현재 <청년에세이> 시리즈도 《민족문학을 넘어서》(신승엽)부터 《비평과 권력》(권성우)까지 1년 동안 총 8권을 펴냈다. 박정모 대표는 "문학이 과거에 가졌던 힘을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하며, 하지만 "현장에 대한 날카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비평이며, 이는 인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비평집을 펴내는 이유를 밝혔다.

1980년대 사회과학 담론의 중심이었던 비평

1980년대엔 비평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정도 뚜

렷했다. 문학의 방향성을 지시하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든 신념에 차 있었다. 평단의 계몽주의적 자각은 전시대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서 비롯됐다. 1970년대 문학논의는 '순수-참여'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실존주의가 '사회참여'라는 원래의 맥락과 유리된 채 유행어처럼 사용됐고, 민중에 의한 문학만이 '정도'라는 극단적 실천론이 세를 불려가고 있었다. 영미의 보수적 문학전통인 '신비평'이 강단에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나긋나긋한' 텍스트 뜯어보기가 일부 흐름을 이뤘다.

1980년대 문턱을 넘자 문학계의 어수선한 담론들은 '이론적 심화'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다. 이 작업은 서로 상이한 이념을 지향하는 두 매체를 근거지 삼아 진행됐다. '문지'와 '창비' 그룹이 그들이다. 전자는 외국문학 전공 비평가들이 비평의 '과학화'에 매달렸고 후자 진영은 민족·민중문학의 이념적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줄기의 비평활동은 모두 사회과학적 상상력으로 충만해 있었다.

1978년에 출간된 백낙청의 첫 평론집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창작과비평사)은 여러모로 상징적이다. 서구 시민사회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론적으로 정교화하고 이를 시민문학의 특수 개념으로 정립, 민족문학의 초석으로 삼았다.

반면 1980년 벽두에 나란히 나온 김병익의 《상황과 상상력》과 김치수의 《문학사회학을 위

하여)(이상 문학과지성사)는 시대와 문학과 개인의 관계정립에 주목했다. 또 당시의 '참여문학론'을 독단론과 반과학주의로 몰아세웠다.

그런데 이 분위기는 1980년 문지와 창비가 강제 폐간당하면서 좌절됐다. 1985년 복간되기까지 비평집 출간은 공백기를 맞는다. 비평가들은 《우리세대의 문학》《언어의 세계》 등의 무크지 창간에 뛰어들어 게릴라식 글쓰기를 감행했다.

1986년 출간된 《한심한 영혼아》(이남호, 민음사), 《깊이의 시학》(진형준), 《역사적 삶과 비평》(홍정선)은 이 시기의 문학적 고민이 녹아 있다. 이들 비평가들은 각각 텍스트의 내재적 해석, 세련된 수사학, 문학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입지를 굳혔다. 이어 성민엽의 도전적인 비평집 《지성과 실천》(1986), 《문학의 빈곤》(1988)이 잇따라 나와 글쓰기의 '실천적' 성격에 대해 새롭게 성찰했다. 정과리의 첫 평론집 《스밌고 짜임》(1988, 이상 문학과지성사) 또한 예각적이고 논쟁적인 문체로 김 현의 분석주의 계보를 이었다.

이와 함께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이론적 정립도 본격화됐다. 최원식이 《민중문학의 논리》(창작과비평사, 1982)를 통해 백낙청 이론의 엘리트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민족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문학과 이데올로기》(임현영, 1988)는 민중문학론을, 1990년 나온 《민중현실과 문학비평》(윤지관, 이상 실천문학사)은 최원식의 문학논리를 측면 지원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근대성 논의 개척해

1989년 출간된 남진우와 이남호의 비평집은 1980년대 전반의 비평을 정리하면서 비평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남진우는 《바베포의 언어》(문학과지성사)에서 자유로운 문학적 상상력을 복원하자고 제창했으며, 그야말로 텍스트와 몸쉬는 내재적 비평을 시도했다.

1990년대 접어들어 비평계는 현실 사회주의 붕괴라는 '철퇴'를 맞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의 비평가들은 그 후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 창비와 실천문학사는 1994년까지 한편의 비평집도 내지 않고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반면 텍스트비평과 문화비평은 르네상스를 맞았다. 《상처와 응시》(박혜경), 《비평의 매혹》(권성우), 《애매성의 옹호》(권오룡, 이상 문학과

지성사), 《문학과 현실의 원근법》(이경호),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부가 있다》(이운택),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강명구, 이상 민음사)이 줄을 이었다.

이 가운데 1993년 출간된 이광호의 첫 평론집 《위반의 시학》(문학과지성사)은 신세대적 감수성을 보여주며 1990년대 비평의 개막을 선언했다. 그것은 또한 1980년대와의 방법론적 절연의 자세를 취했다. 이씨는 1980년대를 "닫혀진 책"의 시대로 정의하면서 당시의 비평이 텍스트로부터 독서 주체를 소외시켰다고 비판한다. 텍스트의 무의식과 인식구조에는 무관심한 채, 계급의식과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권성우, 박혜경, 남진우 등 젊은 비평가들의 인식론적 합의사향이었다.

1980년대의 내면적 코드들을 외화시키는 작업들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자 1990년대의 문학논리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포스트모더니즘 비평과 근대성 논의가 비평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영미 소설가들의 번역소개, 프랑스 철학자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의 조건》(유정완 외, 민음사)을 비롯해 일련의 후기 구조주의 담론이 유입되면서 활발해졌다. 혼성모방(페스티쉬)과 패러디적 작풍이 일면서 박일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민음사)과 이인화의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세계사)에 대한 표절시비가 일었다.

정실비평, 엘리트주의에 대한 도전, 문학담론의 탈중심화 등이 한동안 평단을 장악하고 있었다. 근대성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런 가치상대주의와 비현실성에 대한 반성으로 제기됐다. 이광호의 《환멸의 신화》(민음사)는 근대적 인식들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논의를 본격화시켰고 서영채의 《소설의 운명》, 우찬제의 《타자의 목소리》(이상 문학동네), 황종연의 일련의 평론들은 국문학계의 성과와 연계해 문학작품에 나타난 근대성의 양상을 점검해나갔다.

전통적 틀에서 벗어난 에세이식 비평집

1980~1990년대 비평은 끊임없이 문학과 사회의 관계, 인간의 숨은 진실에 대한 탐구를 펼쳐오면서 지식사회 및 대중문화에서도 큰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비평은 이 역



1980~90년대 비평은 비평의 논리에 충실했고 문학과 사회의 공존을 모색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사진은 문학평론가 백낙청·김병익·정과리·김성기씨(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할의 상당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다.

문학과지성사의 윤병무 과장은 "대부분의 비평집이 작가론, 작품론, 해설들이고 칭찬일변다. 이런 글들이 비평집으로 묶이는 관행이 오래 지속되면서 독자들이 등을 돌렸다"고 말한다. 한 출판사 문학담당 직원은 "교수평가제가 실시되면서 실재물로 비평집을 묶으려는 경향이 많이 생겨났다. 출판·학계의 유착관계가 비평적 글쓰기 및 출판의 엄정성을 많이 깨뜨린다"고 꼬집기도 한다.

최근 새로운 비평집 출판 경향이 생겨나 출판 및 학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문지스펙트럼>과 <책세상문고·우리시대> 시리즈의 경우다. 전자의 경우 주경철의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성기완의 《재즈를 찾아서》, 신현준의 《록음악》, 권귀숙의 《신혼여행의 사회학》 등이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40권째를 기록중인 책세상의 <책세상문고·우리시대> 시리즈 또한 대학 신입생부터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함으로써 학자 및 비평가들의 글쓰기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들 비평집의 특징은 에세이와 같은 대중적인 문체를 갖추고 비평가가 서 있는 자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입장'이 분명한 글은 그 안에 글쓴이의 개성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비평은 역시 '개성 있는 관점'이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 강성민 기자